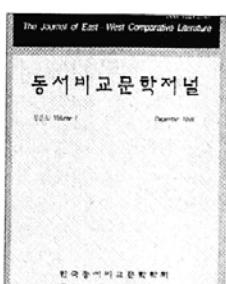


### ‘동서비교문학저널’ 창간호 발간 英美문학의 불교사상 연구

T.S. 엘리엇, 휘트먼, 에머슨, 토마스 하디 등 소설가 시인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영미문학에 나타난 불교와 동양사상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다.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회장 박영의)는 97년 7월 59명의 영문학자들이 모여 발족한 단체이다. 이 학회는 2년여 동안의 활동성과를 모아 최근 학회지(동서비교문학저널) 창간호를 편찬해 냈다.

창간호에 실린 11편의 논문 가운데 “자아의 노래: 경성을 위한 휘트먼의 회화”에서 김인중 교수(한림대)는 “휘트먼이 노래하는 ‘자아의 노래’에서 신비적인 경험 내지 참된 자아의 깨달음은 그 본질에 있어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과 유사하다. 시를 통해 자신이 깨친 것과 유사한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독자를 인도하려는 휘트먼의 모습에서 자신의 제자를 선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려는 선사 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자아의 노래’는 영적인 깨달음을 노래하는 휘트먼의 개성이고 휘트먼이 독자들의 깨달음을 위해 특별히 고안해낸 공안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경일 교수(경희대)는 ‘니르바나의 시학: 불교적-포스트모던적 영문학 읽기를 위한 방법론’에서 ‘엘리엇이나 키츠 등과 같이 불교도를 가장하지 않고 불교적 지혜의 이해와 실천을 보여주는 담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니르바나 시학’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태호 교수(관동대)는 휘트먼에게 불교사상을 심어준 시인으로 유명한



에머슨을 곁잡한 ‘미국시의 시적 특성의 원류: 에머슨의 ‘Nature(자연)’의 선적해석’에서 “에머슨은 표면적으로는 서구 철학적 식견과 내용을 표출하지만, 내면에는 인도 철학적 사상과 불교 사상을 심도있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D.Salinger의 단편과 불교사상에서 박영의 교수(충남대)는 J.D.Salinger의 단편에 나타난 열불상, 사후생원 등에 들어있는 주인공들의 행위를 한층 깊은 불교철학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Immanent Will(내재의 지)와 불교사상: Thomas Hardy의 동양적 자연관(백원기 동국대 교수) 등 6편이 불교사상과 관련된 영문학을 조망한 논문들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는 현재 오국근 교수(동국대), 전진봉 교수(부산대), 한태호 교수, 박경일 교수 등 59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학회는 앞으로 국내 학술회의 개최, 세계 각국의 유사학술회의 교류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학술단신

#### ‘종교연구’ 등 학회지 발간

종교관련 학회인 원광대 한국종교사연구회(회장 류병덕)와 한국종교학회(회장 김경태)가 잇따라 학회지 《한국종교사연구》 제7집과 《종교연구》 제17집을 발간했다.

《한국종교사연구》에는 정순일 교수(원광대)의 ‘화엄성기의 사상적 연원’, 이병욱 박사(고려대)의 ‘원효와 종일의 회통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노권용 교수(원광대)의 ‘불신관에 관한 연구’ 등 10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종교연구》는 조순후기 강학(講學)의 부흥과 전개-김창숙 박사(동국대), 한국 불교의례의 질차와 의기구조-박선영 교수(동국대), 영주주의와 불교 그 상관성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논의-이상훈 박사(한국영문학회) 등 12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 19일 비판불교 2차 세미나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에 대한 2차 세미나가 19일 2시 동국대 90주년기념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차 세미나에는 비판불교의 전문가로서 이해에 대한 검토를 김성철 강사(승가대), 홍성기 강사(덕성여대)가 발표한다.

#### 삼학원 하기학기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불교원전전문학원 삼학원의 99년도 하계학기 교육을 24일부터 8월28일까지 10주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불교원전연구과정 불교어학연구과정 기초학과정의 3단계로 나뉘어(백운화상어록)〈간작 국사어록〉 강독, 불교 근본교설의 이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진표율사 정치적 평가 무리”

### 김상현교수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 학술회의서 주장

진표율사를 백제부흥운동 건원공에 등과 연관시켜 정치사적으로 해석하던 기존 학계의 경향에 대해 진표의 미륵신앙을 그의 점찰교법과 관련지어 종교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으로 9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된 제2차 학술회의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에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진표의 불교사적 위치-미륵신앙을 중심으로’를 통해 “진표가 백제인이었다는 〈송고승전〉의 기록만으로 진표의 사상과 활동을 정치사화사적 관점으로 평가해온 기존 학계의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고 비판했다.

첫째 진표의 출가동기를 백제 부흥운동에 대한 각오로 본 견해는 12살이었던 진표에게 너무 조속한 생각이었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출가동기라고 지적했다.

둘째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아 후에 도술선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는 미륵보살의 수기를 이상국가의 건설을 꿈꾼 것으로 해석한 것과 신라 경덕왕이 진표를 공으로 초창해 보살계를 받았다는 기록에 대해서 경덕왕과 진표가 밀착했거나 경덕왕이 진표의 신앙운동을 회유하려 한 것이라 견해는 종교적인 내용의 기록을 반대로 해석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셋째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해 백제미륵신앙의 성격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나 신라말의 사회변혁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진표가 백제 불교 전통의 부활이나 백제의 부흥을 꿈꾼 반신라적인 인물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이해이며,

넷째 진표의 점찰교법이 영심을 거쳐 심자에게 계승했다는 기록을 ‘진표의 미륵신앙이 신라의 변방에서 그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마에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참회 수행했던 심지의 종교적 열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해석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다섯째 견학이 3개월 동안 금산사에 유래했다는 기록에 대해 미륵신앙에 기반을 둔 반신라적인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진표의 소망을 견학이 나름대로 실현했던 것이라는 해석과 공예와 진표의 미륵신앙을 연결지으려는 시도, 신라 말 농민 봉기의 종교적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 주장 등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고려시대 유가종의 역사와 금산사-김상영 교수(승가대) △보살상 처영의 생애와 승군 활동-박영기 강사(동국대) △조순후기 시승(詩僧)과 금산사-이진오 교수(부산대) △일제하 금산사의 사색(寺格)-김광식 연구실장(대각사상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 세미나에서 김상현 교수는 “한국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종교현상을 종교현상 그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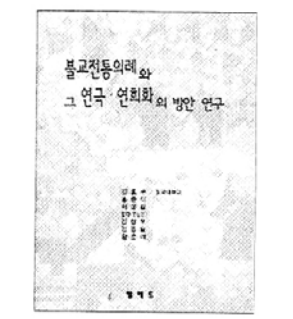
### 불교의례 연극 연희화 제안

#### 김홍우교수 ‘불교전통의례와...’ 펴내

“천도재나 49재는 의례만 가지고서는 그냥 의례로 끝난다. 성불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유령의 일대기를 극화하면 가망자의 일대기를 극화하면 경내 공간을 활용, 볼 수 있게 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티벳의 어느 절에서는 ‘미나르와 공화기’란 작품 하나를 경내에서 공연하여 천도재를 지내러 온 사람이 모두 즐기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모재를 지낼 때 사명대사 서산대사 원효대사 무학대사 등의 일대기를 극화하여 보여주는 일도 ‘미나르’와와는 다르지만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원도 낙산사의 경우 ‘조선의 꿈’을 천도재가 있을 때 보이는 것은 꼭 의미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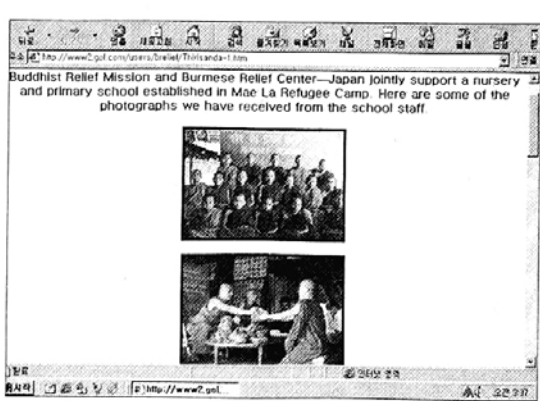
최근 발간된 〈불교전통의례와 그 연극 연희화의 방안 연구〉에서 김홍우 교수(동국대)는 천도재 49재 우란분재 등의 역사와 전통을 고찰해 전통을 살리면서 불교의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연극 연희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란분재의 경우 불교 교의였던 신라와 고려 때에는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의례로서 행해졌지만 조선조 이후에는 배불정책에 의해 사찰에서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민간에서는 소벌 변형되어 백중놀이로 변해왔다. 우란분재 등 전통불교의례의 연극 연희화가 정당화되면 영산제 등과 같은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것과 함께 포교는 물론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한 세계적인 사찰로 부상할 기회”



◇ 김홍우교수 ‘불교전통의례와...’ 펴내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Buddhist Relief Mission and Burmese Relief Center—Japan jointly support a nursery and primary school established in Mae La Refugee Camp. Here are some of the photographs we have received from the school staff

### 부타피아 사이버 기행

#### 불교빈민구제사업단

### 아시아지역 복지·장학사업등 전개 ‘불교개론’ 소책자 보급 난민 포교

지역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방은 난민과 빈민을 돕는 불교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바로 불교빈민구제사업단(Buddhist Relief Mission, 이하 BRM)이다.

일본에 본부를 둔 BRM은 주로 아시아 지역 난민과 빈민을 위한 불교구제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불교단체다.

88년 일본 나라현(縣) 키슈하라시(市)에서 일본불교의 각종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난민·빈민구제’ 활동을 위해 설립한 이 단체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초석으로 사회복지운동·불교자선봉사운동을 전개해온 국제적인 불교 포교단체이기도 하다. 특히 BRM은 ‘무주교보시’를 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있어, 모든 구성원이 무급의 자원봉사 직원들로 조직·운영되는 특징도 있다.

BRM의 재원은 독자가나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BRM은 기부자, 회원들에게 〈담마파디(Dhammapada, 법구경)〉라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아시아 분쟁지역인 ‘라오’에서 4천8백부, ‘크메르’에서 5천부, ‘몬’에서 3천부 등이 배포돼, 분쟁에 시달리는 현재 주민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는 〈불교개론〉이라는 소책자를 보급해, 불교포교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Strive On With Diligence)’과 ‘기부(Donations)’라는 비디오를 제작, 미국과 유럽에 아시아 지역의 분쟁과 고통받는 난민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티미더 포교자료도 병행과 난민촌 그리고 교도소에 기증하고 있다.

또 BRM은 인도에서 불교화를 전파하고 있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 스님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불교교사인사(Young Buddhist Student Literacy Mission)이라는 장학재단을 개설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더욱 늘리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 국경선 근처에 개원한 사찰 가운데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사찰의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하로크하니 몬 난민 캠프(Halockhani Mon Refugee Camp)에 사찰을 건립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BRM의 재원은 독자가나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BRM은 기부자, 회원들에게 〈담마파디(Dhammapada, 법구경)〉라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아시아 분쟁지역인 ‘라오’에서 4천8백부, ‘크메르’에서 5천부, ‘몬’에서 3천부 등이 배포돼, 분쟁에 시달리는 현재 주민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있다.

미얀마 난민들에게는 〈불교개론〉이라는 소책자를 보급해, 불교포교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Strive On With Diligence)’과 ‘기부(Donations)’라는 비디오를 제작, 미국과 유럽에 아시아 지역의 분쟁과 고통받는 난민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http://www2.gol.com/users/brrelief/brm.HTM

###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분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 신비한 작용

◎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소한 기운을 수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인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자리에서는 방마다 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팔려 걸어 놓으시기를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화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풍수회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환경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로 도질로 변화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 처방비법

###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